

“호남예술제는 미술인생 시작점 ... 자부심 그 자체”

호남예술제 70년

〈8〉호남예술제를 빛낸 예술가 - 화가들

호남예술제는 그동안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풍성하게 하는 밑거름의 역할을 해 왔다. 어린 시절 예술가의 꿈을 꾸었던 세쌍들은 세월이 흘러 예술가로, 교육자로, 지도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음악, 미술, 문학, 무용,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연을 거쳐 간 60만 명의 참가자들은 호남예술제의 산증인들이다. 이들의 활약과 열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70년의 역사 속에서 미술 작가들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오늘날 광주 비엔날레의 도시, 미술의 도시로 도약하기까지는 지역민들의 성원과 문화행정 외에도 많은 미술인들의 열정과 눈부신 창작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황영성, 강연균, 우제길, 최영훈, 진원장, 국중호, 나상욱, 송필용, 김해성, 조강훈 등은 호남예술제가 배출한 작가들이다. 자신만의 개성적인 창작 활동으로 예술 세계를 열어왔던 이들은 지역 미술을 넘어 호남 미술의 텃밭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일궈왔다.

수채화를 통한 회화적 완성에 주목하며 다채로운 주제를 구현해왔던 강연균 화백은 호남예술제가 배출한 예술가다. 고등학교 시절 참가한 예술제에서 특선을 수상했는데 당시 심사위원이 오지호 화백이었다.

얼마 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강 화백은 지난 1960년 열렸던 제5회 대회 당상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집에서 화실까지 30분간을 걸어 매일 출근한다는 그는 “호남예술제 초창기는 초등학교 위주의 경연대회였다. 저는 ‘중고등부’로 대회가 확대돼 치러졌을 때 처음 참가해 특선을 받았다”며 “당시 전남대학교에서 사생대회가 열려 캠퍼스 풍경을 그렸던 기억이 여전히 새롭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 가장 큰 예술제에서 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후일 작가생활을 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됐다”며 “당시는 지금의 호남예술제와는 영향

력과 규모 등에서 차원이 달랐다”고 회고했다. 광주시립미술관장을 역임했던 최영훈 화백은 호남 예술제와 관련 많은 추억을 갖고 있다. 그는 호남예술제 전신인 제1회 어린이 사생대회부터 참여했다. 중고교시절은 거의 매회 대회에 참여할 만큼, 호남예술제는 그의 학창시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때 참여했던 예술제는 잊을 수 없다. 어린 시절의 ‘최영훈’을 떠올릴 수 있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 “사직공원에서 미술 사생대회가 열린 날이었죠. 광주 시내 초등학교는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당시 사직공원 인근 양림동은 선교사들 집이 많았습니까. 이색적인 풍경을 그리기 위해 학생들 몇 명이 담을 넘어가 그림을 그렸는데 저도 그 중에 끼어 있었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얼마 안 됐는데 어디선가 개(셰퍼드)가 짖으며 쫓아오는 것이었어요. 허겁지겁 도망을 치다 그만 신발을 잃어버렸는데 인솔 선생님께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진원장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을 통해 미술계에 입문했다. 그러나 그의 미술 인생의 시작은 호남 예술제였다. “지역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호남예술제와 조선타 실기대회가 있었다”며 “호남예술제는 특히 학교 간 경쟁의 의미가 있어 치열했다”고 한

다. 그는 “70년을 쉬지 않고 경연을 이끌어온 것은 광주일보의 저력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예술 꿈나무들의 탄실한 등용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미술부에서 활동하며 예술제에서 입선, 특선을 했던 국중호 화가는 축제제의 장으로 기억한다. “미술부 30명이 나갔는데 2명 정도만 입선할 만큼 상을 받기가 어려웠다”며 “지금도 전통과 역사가 있는 호남예술제에서 수상을 한다는 것은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국 작가는 시대 트렌드와 연계된 방향성을 고심한다면 호남예술제는 100년, 200년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우리 역사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정체감과 역동성을 부여하는 조각 세계를 펼쳐온 나상욱 작가. 그에

게도 호남예술제는 자부심 그 자체였다. 고교 1학년 때 사직공원에서 열린 사생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동학100주년기념 승전탑’, ‘5·18광주민중항쟁 추모탑’, ‘광주학생운동기념탑’ 등은 역사와 현실을 이야기 조각의 창작방식으로 구현한 작품들로 꼽힌다.

나 작가는 “학창시절 호남예술제에서 상을 받는 것은 유명인사가 되는 것과 같았다”며 “수상 이력은 작가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자긍심이었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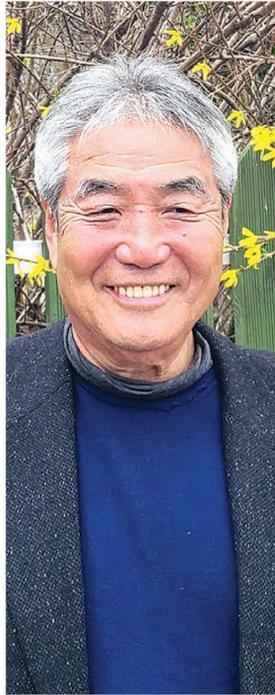
송필용 작가는 꿈을 키워준 시간으로 호남예술제를 기억했다. 남도 대표 미술제인데다 학교에서도 뽐내야 나가기 때문에, 입상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예향’이 있기까지 호남 예술제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앞으로도 꿈나무들이 더 높은 꿈을 꿀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차례 예술제에 참가한 김해성도 호남예술제가 낳은 작가다. 그는 “당시 ‘수상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계기였다”며 “요즘은 학교가 성적에만 치우치다 보니 예제는 교육에 소홀한 점이 있는데 교육과 연계한 방식을 고민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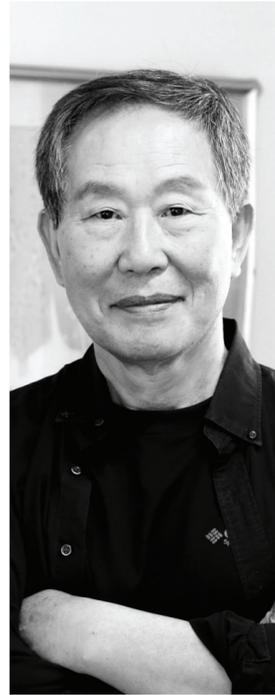
한편 한희원 작가는 뒤늦게 그림에 입문한 탓에 학창시절에는 예술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후 심사위원을 많이 맡았다. 그는 호남예술제의 역사성과 지속성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예술의 꽃은 예술가다. 호남예술제는 지역 출신 작가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린 축제와 등용문의 장이었다”며 “70년이라는 세월은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 다양한 가치를 내재한 축제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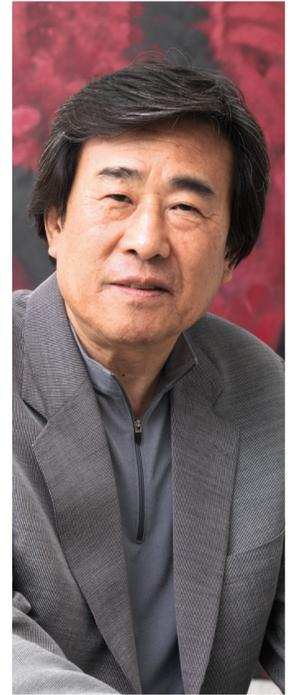
강연균 작가



최영훈 작가



진원장 작가



국중호 작가

광주송정역 오래된 골목들, 주말마다 핫플 변신

14·21일 광산로 일대서 맥주 페스타·행복축제...골목상권 활력

광주송정역 인근의 오래된 골목들이 토요일마다 축제의 열기로 물든다.

1913송정역시장과 광산로 일대에서 오는 14일과 21일, 각각 ‘맥주 페스타’와 ‘행복 축제’가 펼쳐진다. 두 축제는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리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쇠퇴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이 주도하는 문화현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14일 오후 4시부터 9시 30분까지 열리는 ‘1913송정역시장 맥주 페스타’는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지역 대표 행사다. 정겨운 전통시장 분위기를 속에서 시민 노래자랑(오후 4시)을 시작으로, 밴드 네시봉의 감성 라이브(오후 6시 30분), DJ준디 & 댄스팀 일브로의 EDM 공연(오후 8시 30분)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거리에는 맥주와 길거리 음식 부스를 비롯해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골목의 흥과 맛을 더할 예정이다.

이어서 21일 오후 5시부터는 광산로 1~4구간 거리에서 ‘광산로 행복 축제’가 열린다. 가수 김예담의 무대(오후 5시~6시), 시민 노래자랑(오후 6시 30분), DJ장군 & 잭팟크루의 퍼포먼스 쇼(오후 8시) 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돋운다. 거리에는 인생샷 포토존과 먹거리 부스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두 축제 모두 시민노래자랑 참여자를 현장에서 접수하며, 현장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총 150만원 규모의 상품이 증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리네상스 사업추진단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운선 사업추진단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광주송정역세권이 다시 한 번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리네상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



1913송정역시장.

까지 5년간 추진된다.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콘텐츠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내일 5·18 민주광장서 축제

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 로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 다른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은 그만큼 중앙이나 수도권과는 차별되는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지닌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지역 문화적 자원과 가능성을 인문과 예술,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관점으로 풀어내는 축제가 열린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노경수)은 ‘2025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축제를 오는 14일 오후 5시에 펼친다.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 주제는 ‘로컬: 뿌리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은 이번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축제는 지역 가치들이 문화로 피어나고, 다시 도시 전반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인문, 예술, 테크놀로지를 모토로 ‘로컬’의 의미와 가치를 축제로 연계한다는 복안이다. ‘드로잉 로컬’은 화가와 웹툰작가, 전공학생, 시민

이 함께 현장 드로잉을 함으로써 문화 공동체를 함께 실현한다는 데 뜻이 있다.

‘로컬의 목소리 & 로컬의 울림’은 공연, 토크쇼 등 참여 위주로 운영된다.

먼저 전통 공연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다음으로 인문사회학자와 시인, 그림책 작가가 참여하는 토크쇼가 펼쳐진다.

광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어줄 연극도 마련돼 있다. 놀이패 신명이 5·18광장을 다룬 마당극 ‘연젠가 봄날에’가 관객들에게 그날의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후 LED 모듬북 퍼포먼스, 실용무용 ‘빛으로’, 한국무용 ‘Light the Street’가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다음으로 발레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가 펼쳐져 이색적인 무대를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AI와 예술의 만남이 결합된 체험부스를 비롯해 인문과 환경의 만남을 체험부스에 담아낸 ‘그린-잇 로컬’도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